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들이 따라배우고 계승하여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

손 혁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항일혁명선렬들로부터 새 세대들이 이어받아야 할 가장 값높은 재부이며 사람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귀중한 정신적량식입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6권 13페이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무장시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고 조선혁명의 전 력사적로정에서 발전 풍부화된 혁명정신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자기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려는 충실성의 정신이며 자체의 힘으로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며 억천만번 쓰러졌다가 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이 언제나 따라배우고 계승하여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우리 인민들이 따라배우고 계승하여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자기 령도자와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충실성의 정신이기때문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에는 자기 령도자와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충실성의 정신이 구현되어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혁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도록 고무추동하는 혁명정신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혁명의 령도자를 높이 받드는 고상한 혁명정신을 간직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의 한길에서 억세게 살며 싸워왔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일제에게 짓밟힌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실분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 한분뿐이시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랐으며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고있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얼마나 높이 모시고 따랐는가 하는것은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북부국경지대와 만경대, 룡악산, 대성산, 마두산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발굴된 구호나무들에 썩여진 구호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마두산혁명전적지에 보존되어있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혁명의 사령부 목숨으로 지키자》 등 구호문헌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고 수령님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항일혁명투사들의 높은 충실성과 견결한 의지가 력력히 어려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니였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정신은 우리 인민들이 주체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된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우리 인민들이 따라배우고 계승하여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

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기때문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혁명가들의 투쟁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구현되어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국가적후방이나 정규무력의 지원도 없는 조건에서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원수들을 죽치였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 소왕청과 처창즈의 정신이 평범한 날에 나온것이 아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서 언제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갔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혁명임무라도 자체의 힘으로 무조건 수행하는 완강한 공격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자력갱생하는 혁명적기풍이 있기에 항일혁명투사들은 맨주먹으로 폭탄과 무기를 만들어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있었다.

항일의 나날에 높이 발휘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검증된 혁명정신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 력사를 쥐여짜면 자력갱생의 력사라고도 말할수 있다.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날에 우리 당과 인민은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을 겪었지만 수천년민족사를 다하여서도 누릴수 없었던 모든 영광을 맞이하였다. 우리가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력의 원칙을 포기하였더라면 주체의 사회주의는 지구상에 태어나지도 못하였을것이며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함께 우리의 국호도 빛을 잃었을것이다. 자력갱생의 궤도우에서 패허우에 천리마가 날아올랐고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이 탄생하는 민족사적기적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 천리마속도와 80년대속도, 희천속도, 《마식령속도》, 조선속도와 같은 시대어가 창조되게 되었다.

오늘날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려는 정신이며 최첨단돌파의 정신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봉쇄를 짓부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자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발휘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 항일혁명투사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배울 때 맨손으로 트랙토르와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그 투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을 줄기차게 이어나갈수 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우리 인민들이 따라배우고 계승하여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기때문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억천만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를 가지고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일단 하자고 결심하면 아무리 어려운 과업이라도 기어이 해냈으며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라는 구호밑에 강의한 의지와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불사조와 같이 역세게 싸웠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과 난관도 과감히 뚫고 승리를 이룩하게 한 사상정신적재부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다.

우리는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닌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어려워도 주저않지 말고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우리 인민들이 따라배우고 계승하여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주체혁명위업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락천적으로 생활할수 있게 하는 혁명정신이기때문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에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승리의 필연성을 굳게 믿고 그 어떤 간고한 조건에서도 절개를 굽히지 않는 백절불굴의 의지와 혁명적락관주의가 구현되어있다.

항일혁명투쟁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한 투쟁이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참기 어려운 곤난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였고 목숨도 바쳐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비관과 절망을 몰랐다. 그것은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락천적으로 생활하며 싸웠기때문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적락관주의정신,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을 지녔기때문에 사형장에서조차 미래를 사랑하라고 웨치면서 장렬하게 최후를 마칠수 있었고 적들에게 체포되어 두 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웨칠수 있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니였던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 없으면 정세가 복잡하고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나설 때 혁명승리에 대하여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 동요하거나 지어는 당과 수령을 배반하고 혁명의 변절자로 전락될수 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니였던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를 깊이 체득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굳게 믿고 굴함없이 싸워나가야 한다.

오늘 혁명의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의 정신력을 천백배로 다져주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로 떠밀어나가는 사상정신적재부로 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지니고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